

작품 내용

제 목	빌린 문장, 비워 둔 자리
내 용	나는 매일 아침 문장을 지운다. 정확히는 고른다. 우리 회사는 계절마다 계절 선물을 골라 정기구독으로 보낸다. 상자는 그 계절을 담은 그릇이고, 나는 거기 얹히는 문장을 쓴다. 밤사이 AI가 무더기로 뽑아서 또 그걸 AI 스스로 걸러낸 광고 카피가 화면에 스무 개쯤 떠 있고, 나는 그중 열아홉 개를 버린다. 15년 차 카피라이터가 하는 일이다. 버리는 건 쉽다. 남기는 쪽이 어렵다. AI가 쓴 스무 개는 하나같이 틀린 데가 없다. 리듬도 좋고 군더더기도 없다. 문장은 언제나 감정의 도착지까지 읽는 이를 정확히 데려다놓고, 거기서 깔끔하게 닫힌다. 예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 수백 개의 후보를 만들고 그중 하나를 건져 올렸다. 지금은 10초 만에 스무 개가 쏟아진다. 팀장은 그걸 진보라고 불렀다. 나는 거기에 반박할 말을 딱히 찾지 못했다. 주문서에는 받는 사람 칸이 있다. 고객이 거기에 이름을 적으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상자를 부친다. 카피는 그 위에 얹히는 한 줄이다. 봄 캠페인에서 일이 생겼다. 마감은 밤 열한 시였고, 내 카피는 세 번 반려됐다. 나는 지쳐 있었고, 집에 가고 싶었다. AI 후보 중 하나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 ‘당신의 계절이 도착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었다. 다음 날 그 문장은 그 달 회사 사내 게시판 최고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이 한 줄을 캡처해 날랐다. 한 잡지가 올해의 카피 후보로 그것을 뽑았고, 담당자 이름을 묻는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 주었다. "김서윤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데 5초 남짓이나 걸렸다. 그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문장을 고르는 건 내 일이다. 거기까지는 떼뻗혔다. 전화기 앞에서 나는 선을 넘었다. 고르기만 한 줄 밑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안도가 부끄러움보다 조금 더 컸다. 그게 나를 더 부끄럽게 했다. 며칠 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다. 신입 때 쓰던 것이다. 페이지마다 지운 문장과 다시 쓴 문장이 엉켜 있었다. 여백에는 내가 나에게 남긴 평이 적혀 있었다. ‘너무 평범함’. ‘감정 없음’. ‘버릴 것’... 그 무렵의 나는 하루에 백 개를 버리고 한 개를 건졌다. 지금은 백 개 중 하나를 고른다. 언젠가 AI에게 물은 적이 있다. ‘네가 쓴 문장은 누구의 경험이나?’ 고. 답은 즉각 왔다. ‘저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답을 한참 들여다봤다. 답에는 망설임 자리가 없었다. 가을에 후배가 들어왔다. 후배는 내 옛날 카피를 오려 두었다고 했다. 신입 지원서에 그 줄을 적어 냈다고도 했다. 나는 웃고 말았다. 그 문장들은 AI가

만들었고 버려진 백 개 위에 겨우 살아남은 한 개였다.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애는 내가 봄에 무엇들을 버렸는지 모른다.

마지막 캠페인 회의. 화면에는 흠잡을 데 없는 문장들이 떠 있었다. AI가 뽑은 것이었고, 팀 전원이 만족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마음에, 봄 한 상자를 놓아 드립니다.’

나도 그 문장이 좋았다. 좋아서 오래 봤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혹시, 제가 다시 써 봐도 될까요."

팀장이 시계를 봤다.

"굳이 왜?"

"굳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AI가 만든 완벽한 문장을 고치지 않았다. 그 아래 한 줄을 더했다.

‘받는 사람 이름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마음을 담아 써 보세요.’

썩 마음에 차는 문장은 아니었다. AI의 문장은 감정을 끝까지 채우고 닫아 버렸다. 내가 더하려 한 것은 그 가득 찬 완결 안에 숨을 쉴 만한 빈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보내는 사람이 거기에 제 마음을 담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크레딧 칸에는 내 이름을 직접 넣었다. AI 표기는 지웠다. 봄에는 하지 못한 일이었다.

사내 게시판에서 내 카피를 캡처해 나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주문은 제법 들어왔다고 한다. 받는 사람 칸마다 이름이 손 글씨로 적혀 있었다. 십 년 못 본 사람, 장례식에 못 간 사람, 그리운 사람... 각자가 마음속에 미뤄 둔 이름들일 것이다.

봄에는 사람들이 AI 문장을 봤다. 가을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갈 자리를 본 듯했다.

광고 카피 기획서 파일 화면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떴다.

‘기획 및 카피, 김서윤.’

봄에 빌린 이름값을, 가을에 조금 갚았다.

나는 커서를 이름 끝에 두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켜졌다, 꺼졌다.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운 채로 두었다.